



국내최초 두 번 신장이식 받은 환자대상으로 췌장이식 성공

장기이식분야 본격 궤도 오른 안암병원, 큰 성과 기대



왼쪽부터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 간바트씨(췌장이식),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 기시그바트씨(심장이식)

고려대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가 국내최초로 이미 신장이식을 두 번이나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이식에 성공했다. 이번에 새 삶을 얻은 환자는 몽골인 남성 간바트(33, 몽골)씨로, 과거 몽골에서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을 일으켜 지난해 5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박관태 교수에 의해 생체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간바트씨는 췌장의 기능과 내분비기능이 거의 다 망가져 인슐린분비세포 파괴로 인한 인슐린 분비가 결핍되는 제1형 당뇨병세를 보이고 있어 췌장이식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간바트씨는 과거 두 번의 신장이식을 받은 이후여서 이번 세 번째 장기이식은 의학적으로도 난관이 많았다. 우선 몸안에 거부항체를 없애기 위한 '탈감작요법'을 수차례 실시했다.

췌장이식, 까다로워 국내 6개 병원정도만 시행할수 있는 어려운 수술

췌장이식은 원래 장기이식분야에서도 매우 까다로워 국내에서 6개병원 정도만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세 번째 장기이식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이식에 성공한 것은 국내최초로, 한국의 장기이식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할 수 있다. 퇴원을 앞두고 있는 간바트 씨는 "하고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몽골에서 보건복지관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몽골사람들이 한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싶다" 고 말했다. 박관태 교수는 "간바트씨는 과거 두 번의 신장이식을 받은 이후 3번째 장기이식을 받

는 환자이고 그 분야가 췌장이식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환자의 회복속도가 빠르고 새 삶을 희망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어 장기이식 전문의로서 무한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암병원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도 최근 확장성심근증에 의한 만성심부전으로 고생하던 기시그바트(55, 몽골)씨의 심장이식을 집도해 성공했다. 지난 1월 26일 뇌사자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은 기시그바트씨는 몽골의 대통령후보이자 산자부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낸 자르갈세홍씨의 처남으로 오랜 몽골의료봉사활동으로 몽골에서 널리 알려진 박관태 교수의 소개로 안암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안암병원, 최근 2년간 140여건의 장기이식 시행해 랜드마크로 떠올라

췌장과 심장이식에 모두 성공한 안암병원은 최근 2년간 장기이식을 140여건 진행해 이 분야에서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으며, 연이은 장기이식 성공에 이어 이번에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췌장이식도 성공함으로써 장기이식 분야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몽골환자가 지속적으로 안암병원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몽골어를 원어민수준으로 구사하는 박관태 교수가 장기이식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 이미 많은 몽골 환자들이 중증치료를 받고 퇴원한 경험이 축적되어 병동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몽골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노하우가 쌓인 덕분이기도 하다. 안암병원은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계기로 해외환자 유치활동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두명의 환자는 몽골 국민들 중 최초로 심장이식과 췌장이식에 성공한 경우로 몽골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은 몽골에 돌아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환자 유치가 의료계의 화두가 된 요즘, 고대 안암병원의 중증환자 유치전략은 타 병원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췌장이식에 성공한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



새 옷 입은 종합건강진단센터, '서비스부터 남다르네~'

고객과 가족의 건강지킴이로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 실시

고품격 맞춤진진의 대명사 고려대 안암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가 '새 옷'을 입었다.

밝고 세련된 색상과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뀐 새 유니폼을 선보이자 건진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다.

한 건진고객은 "잘 차려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챙겨주니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귀빈 대접을 받는 느낌이다"며 만족해 했다.

문의 : 종합건강진단센터 920-5491, 5106

이화발전기금기부

10.10.01	이동일	₩ 2,000,000
10.10.15	교우회장학금(오유환 외)	₩ 16,400,000
10.11.25	조국형	₩ 1,000,000
11.01.25	이준섭	₩ 2,000,000
11.01.25	이상덕	₩ 10,000,000
11.01.25	정도광	₩ 10,000,000
11.01.25	이용배	₩ 10,000,000
11.01.31	정도영(44회 동기회)	₩ 2,000,000
11.02.08	의과대학 19회 동기회	₩ 66,277,081

11.02.28	성진형(성예규)	₩ 10,000,000
11.02.21	조국형	₩ 1,000,000
11.02.18	신정순	₩ 120,000,000
11.03.02	박지용	₩ 6,000,000
11.03.08	김백희	₩ 5,000,000
11.03.09	김용신, 김기형	₩ 10,000,000
11.03.15	김정식	₩ 100,000,000
11.03.04	조국형	₩ 5,440,000
11.03.15	이은주	₩ 5,000,000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기간 : 2010년 10월 01일~2011년 03월 15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국제화된 의료진과 최고 시스템을 갖추고 새롭게 공간마련한 국제진료센터

[스페셜리포트 1]

해외로 인프라 확대해 해외환자 유치 가속



지난 3월 17일, 이희순 센터장이 러시아인 박호브 게나디(Bykov Gennady, 69)씨를 문진하고 있다.



국제진료센터, 가장 접근성 좋은 병원로비입구에 진료공간 마련

고려대 안암병원은 국제진료센터(센터장 이희순)를 병원로비 중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병원로비입구에 만들어 새롭게 오픈했다. JCI 인증으로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안암병원은 외국인진료팀과 의료관광교류팀으로 전문화해 의사, 간호사, 행정 등의 직원이 외국인 전담교수팀과 함께 외국인의 신속한 진료를 돕고 있다. 진료실에는 전문의가 병력청취, 기본검진 등 1차 진료를 시행한 후 전문과로 전과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해외환자가 중증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치료기간이 길고 보통 환자의 가족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진료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해당 국가의 의료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수술 사례가 많아질수록 국가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관광 경쟁력이 크게 올라가는 효과도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은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해 스파-마사지나 건강검진 등 비치료적 서비스나 비교적 간단한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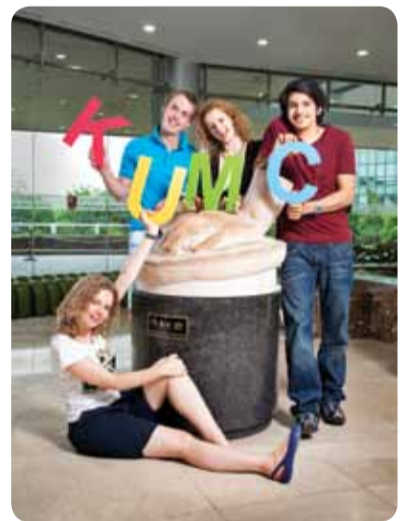
를 받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료관광은 암·심장질환 등 중증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중증치료 중심으로 국제진료센터 경쟁력 높여야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대사관, 카자흐스탄 국립응급의료센터, 몽골국립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유치에 한층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위해 각종 에이전시 및 보험회사와 계약해 외국인진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외국인 외래환자가 1,978명에 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고려대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중증환자 치료에 역점을 두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 장기이식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각종 의료기술을 선정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외국인진료센터를 최근 국제진료센터로 확장 이전 및 개편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과 전담인력 확대 배치, 4개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암병원은 대사관 및 영사관 가족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센터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한국형 의료 수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3월 17일 안암병원을 찾은 박호브 게나디(Bykov Gennady, 69)씨는 지난 2010년 6월에 러시아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비뇨기과 이정구 교수에게 홀랩 및 레이저수술 치료를 위해 입국했다. 국제진료센터는 이렇게 해외에서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이 제일먼저 들리는 곳이다. 박호브 게나디씨는 “친절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의사와 훈련된 코디네이터가 상주해있어 병원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국의의료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찾았는데 치료를 위해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건강을 되찾을 계획이다” 고 말했다.

이희순 센터장은 “외국인 환자를 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능력만을 갖추어서는 어렵다. 의료적인 지식 및 병원의 시스템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2009월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아 국제적인 의료경쟁력도 확보했기 때문에 내실을 다져 3년내에 연 1만명 수준의 외국인이 다녀갈 수 있도록 국제화된 센터를 만들어 가겠다”며 포부를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핫 이슈]

JCI 인증에 이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 국내외 공증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안암병원은 인증유효기간 4년 중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통한 시장 선점과 여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우대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접근성과 적절성, 수용성, 연속성, 효과성, 효율성, 민감성, 안정성, 지속성 등 국제인증기구(ISQua) 평가기준으로 갖춰야 할 9가지 원칙이 반영된 총 4개 영역, 13개 장, 4개 범주, 83개 기준, 404개 조사항목의 인증기준을 3개병원 모두 충족시켰다. 인증결과는 인증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iha.or.kr) 등에 공표됐다.

한편, 안암병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의료기관인증평가 수검과 관련된 환자 추적조사를 비롯해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를 받았다.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연구개발(R&D) 진흥본부장이 바라본 의료산업화]

[기고]

경쟁력 있는 기술

병원의 수익은 의료 수익과 의료외 수익으로 대별된다.



흉부외과 선정 교수

의료수익은 잘 알다시피 환자의 진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은 오랜 기간 급성기 질병을 중심으로 의료수익을 확보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의 성격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에서 웰빙 혹은 재활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성 측면에서는 질병 치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부문의 의료수익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


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민 의료비를 비교할 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정도로 회원국 평균 9%에 한참 밑도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도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치료의학의 기술은 심장병, 암, 척추, 관절, 미용성형 등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선진외국에 비해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이처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배경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증명되듯 한국 의사, 즉 한국사람의 우수함이 있다고 본다.

국내 의료산업의 환경분석을 해보면 의료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내부의 강점(S)'과 국가인지도 상승 및 국제 의료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이라는 '외부의 기회(O)'를 결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S-O전략'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수출이라는 전

략의 선택이 가능하며 현재 정부와 병원들은 서비스 교역의 모드 2 단계인 외국 환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요소,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등의 주요 요인지수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지수는 미국(100점) 대비 26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일찌감치 의료관광을 표방한 싱가포르, 인도 등과 비교할 때 언어, 관광, 교통, 주거, 교육 등의 자원은 심각하다. 따라서 단순히 질병 치료기술만으로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서비스 교역은 모드 3 단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위험-이익 측면에서 외국환자 유치는 의료기관의 진출보다 일견 안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진출할 경우 훨씬 승산이 클 수도 있다. 진출 방법은 국내 병원의 개입도, 위험도, 통제수준, 잠재이익 등을 고려하여 간접수출에서부터 라이선싱, 합작투자, 직접진출 등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에서 결정적인 제한점은 국내 병원들의 비즈니스 역량이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복지 도구로 사용하면서 국내 병원들은 오랫동안 온실 속에 위치해 왔다. 따라서 병원(기술 및 관리)과 기업(자본 및 경영) 그리고 현지파트너(시장)의 컨소시엄은 결정적인 성공 요소가 될 것이다. 

글 | 선정 흉부외과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R&D) 진흥본부장

임상간호논문 쏟아낸 연구열정, 교수님 안부러워요!

[스페셜리포트 2]

수준급 논문 다수 발표, 환자 위한 고민흔적 역력



임상간호연구 논문발표회

•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15:00 ~ 17:40 • 주최: 고대 안암병원 간호부



이은숙 간호부장




간호부 모범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사발 중인 김창덕 병원장

환자불편 및 서비스 개선 위한 임상간호연구 논문 쏟아내

전문간호시대를 표방하며 간호사의 복지, 교육, 사회공헌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이은숙)가 수준높은 연구논문으로 다시한번 눈길을 끌었다. 간호부는 3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1 임상간호연구 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연구의식을 고취시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부 주관으로 해마다 마련되고 있다. 올해에는 최우수상을 차지한 인공신장실의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천자시 간호중재법에 따른 통증완화 효과 비교' 등 총 7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김창덕 원장은 "논문집을 보니 매우 수준급이었다. 바쁜 업무속에서도 오로지 끊임없는 자기혁신, 환자를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우수한 논문까지 준비한 것이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전문성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숙 간호부장도 "지난 한 해 동안 병원을 누비며 애쓰시면서도 논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임상간호가 더욱 전문성을 갖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간호부, '연구역량.감성리더십.자기개발' 3박자 착착 감성리더십 실천과 교육 및 직무평가 통해 간호역량 강화

논문발표회에 이어 '멘토-멘티 맺기', '칭찬트리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감성리더십 실천한 우수부서(55병동, 73병동, 내과중환자실, 55병동)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직무시험 우수부서(내과중환자실, 인공신장실, 71병동) 및 우수자(내과중환자실 김수진, 김정은, 82병동 고은영)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병원소식

안암병원, 역시 의료안전 종결재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리 워크숍'이 대성황을 이뤘다. 3월 10일 오전 10시 고려대 과학도서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최근 의료기관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효과적인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에서 관련 문이 쇄도한 가운데, 총 90여개 의료기관에서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열띤 호응속에 진행됐다. 안암병원 적정진료팀 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 서울과 수도권 큰 병원들은 물론 제주지역에서만 10여명 이상 참석하는 등 지방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무엇보다 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노력이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병원환경 우리가 만들어요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2월 23일 오전 8시 50분 병원장실에서 '2010 간호부 환경개선활동' 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우수부서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심사는 지난 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2일에 걸쳐 병동 및 외래·특수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병동(63병동, 71병동, 73병동) 및 외

래·특수부문(외과중환자실, 수술실, 호흡기내과 외래) 총 6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다. 우수 부서에는 상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졌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각 부서원 모두가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어 병원이미지가 한층 밝아졌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선정된 부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안암병원 간호부는 앞으로 보다 나은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병원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활동을 분기별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 의 장 가져



간호부는 2월 24일(목)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선했다. 병원에 입사한 지 1~2개월 된 신규 간호사 23명을 초청해 그간의 고충과 애환을 내려놓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병동에서의 황당하고 재미있는 에피소

드에서부터 현재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생각에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꿈과 포부까지 나누며 서로의 모습을 비춰보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앞으로도 간호부는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타이틀 아래 공감과 칭찬, 멘토링과 코칭의 4박자 감성리더십을 심분 발휘하여 간호사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간호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호사들과의 스킨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천식 흡입치료 전문가 워크숍 개최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와 환경보건센터가 2월 25일 오후 5시 8층 소회의실에서 '소아천식 흡입치료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효과적인 소아천식 치료를 위한 이번 워크

숍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유영 교수가 '올바른 흡입치료와 흡입방법의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치료를 담당하는 50여명의 전공의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소아천식 치료법에는 주사와 약물이 있지만 흡입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방법이 까다로워 흡입치료시에 약물이 인체로 잘 투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왔다.

'참된 의사의 길' 다짐하는 고대의대 졸업생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욱)은 2월 25일 오후 2시 안암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가졌다. 이날 선서식에는 손창성 의무부총장, 서성욱 의대학장, 김한겸 학생처장, 김창덕 안암병원장, 김정묵 의대교무회장, 박경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성덕 대한의학회장 등 학내외 관계자를 비

롯한 의대 졸업생 108명과 학부모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졸업생들은 선서와 함께 학위증을 수여받았고, 그 중 연동윤 졸업생이 졸업특대생상, 장희원 졸업생이 대한의사협회장상, 박호진 졸업생이 대한의학회장상, 나건후 졸업생이 의무부총장상, 박형준 졸업생이 의과대학 교우회장상, 윤진구 졸업생이 의과대학 학장상 등을 각각 수상했다. 서성욱 의대학장은 "의료인의 윤리적 지침으로 사람을 고치는 인술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오늘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참된 의사의 길을 되새기기 바라며,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암병원 간호부, 제 6차 상처.장루 간호과정 성료!



간호부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제 6차 상처장루 간호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상처장루 간호과정에서는 원내외 간호사 등 총 7개 기관에서 16명이 참가, 현장에서의 상처 드레싱과 장루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처 및 장루관리의 원리와 실

습에 대해 서희원(안암병원), 임승화(서울대병원) 상처장루 전문간호사와 백은선(안산병원) 교육수간호사, 이지혜(안암병원) 영양사의 심도있고 전문적인 간호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창덕 안암병원장이 참석하여 원내 외 간호사 15명에게 병원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하였고, 이후 성적 우수자 3인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서로를 축하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암병원 간호부는 상처장루 간호과정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목표로 분야별 상급, 중급 간호과정을 운영, 계획하고 있다.

고대의료원,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과 전방위 의료교류 물고터



마즈 셔먼(Dr. Almaz Sharman)자르바예프 대학 의무부총장 겸 National Medical Holding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는 양기관간 의학연구, 교육, 진료, 경영 등에 관한 폭넓은

의료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 고안 △방문강의, 인터넷 원격 수업 시스템 고안, 의대생 단기연수프로그램 고안 △환자 전원 시스템 구축, 임상적 단기연수 프로그램, 카자흐스탄 방문 진료 △노하우 전수 및 기타 협력관계구축을 통한 수익 모델 발굴, 위탁운영 등에 관한 광범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나자르바예프 대학 측이 안암병원 의료진과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통하여 고려대의료원에 협약을 제의해 성사됐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학 National Medical Holding는 2008년 6월 설립된 카자흐스탄의 대표 의료법인으로 산하에 6개 병원을 운영하며 총 1,200병상, 의사 약 4,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National Medical Holding 소속 병원과의 수익모델 발굴 방안 모색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 고안 △방문강의, 인터넷 원격 수업 시스템 고안, 의대생 단기연수프로그램 고안 △환자 전원 시스템 구축, 임상적 단기연수 프로그램, 카자흐스탄 방문 진료 △노하우 전수 및 기타 협력관계구축을 통한 수익 모델 발굴, 위탁운영 등에 관한 광범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나자르바예프 대학 측이 안암병원 의료진과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통하여 고려대의료원에 협약을 제의해 성사됐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학 National Medical Holding는 2008년 6월 설립된 카자흐스탄의 대표 의료법인으로 산하에 6개 병원을 운영하며 총 1,200병상, 의사 약 4,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National Medical Holding 소속 병원과의 수익모델 발굴 방안 모색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소식

하삼주 간호사, 학술대회 발표자로 나서




간호부 신생아중환자실 하삼주 간호사는 3월 10일(목)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제 11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QI 발표자로 나섰다. 하삼주 간호사는 'BGA검사(I-STAT 기기) 오류율 줄이기'에 대한 내용의 QI를 발표하였으며, I-STAT 장비는 현재 국내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기로 학술대

회에 참여한 타병원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의 발표 요지는 동맥채혈이 어렵고 채혈량이 작은 신생아의 경우, I-STAT 장비를 이용한 현장검사(POCT)로 혈액가스분석(Blood Gas Analysis, BGA)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가의 재료사용에 따른 비용 효과적 접근의 필요성 및 검사오류 시 반복 채혈로 인한 신생아의 추가적 통증 유발 및 간호업무량 증가, 검사결과의 신속한 확인 지연으로 진료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점에 착안하여 검사오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검사오류율이 약 5.49% 감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남다른 새내기 간호사들의 교육열기




의료원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대 안암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신입간호사 2차 교육'을 실시했다. 1-2차로 나눠서 진행된 이번 일정은 268명의 새내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원 현황 및 복무규정을 비롯해 직장예절 및 서비스마인드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 간호사들의 조직에 대한 적응력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손창성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각 병원장의 축사를 비롯해 △의료원 현황 및 발전방안(이상학 의무기획처장) △간호부 소개(각 병원 간호부장) △고대의료원에서의 나의 5년(안암 김신희 간호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특히, △성공하는 열정과 신입사원의 자세(용해원 시인)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 커뮤니케이션(전 국가대표스피드스케이팅 김관규 감독) △위기극복 능력은 팀간 협동에서 나온다(남극 세종기지 대장 윤호일 박사) 등의 주제로 진행된 명사특강 시리즈는 참석한 새내기 간호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안과 오재령 교수, '황반변성의 모든 것' 발간




안과 오재령(吳在玲, 43)교수가 최근, 망막 교수들의 망막질환 이야기 '황반변성의 모든 것' (라운누리, 88p, 9,800원)을 출간했다. 이 서적은 ▲설명까지 일으키는 망막질환, 황반변성이란 무엇인가? ▲나이카드니 잘 안보인다, 노안일까 다른질환일까? ▲생활습관과 음식으로 위험요소를 차단하라 ▲방치하거나 자가진단으로 선불리 치료하지 말라 ▲황반 색소를 증가시켜주는 음식을 섭취하라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자

세히 살펴보면, 이 서적은 딱딱한 의학적 정보를 담기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쉽게 담는데 주력했다. 특히, 환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해 환자들의 이해를 크게 돕고 있다. 예를들어, '왜 젊은 사람에게서도 황반변성이 생기는가?', '가까운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노안', '어떤 음식이 황반변성 완화에 도움이 될까?', '눈 속 주사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 '황반색소를 증가시키는 계란·시금치·호박' 등에대한 내용들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을 골라 답변을 달았다. 

건강한 심장 되찾아 준 고대에 감사의 뜻으로 1억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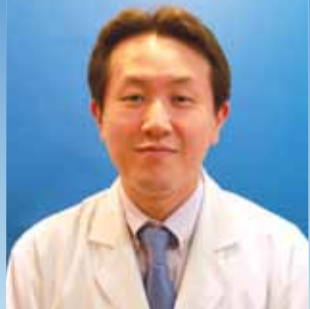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고대 총장실에서 해동과학문화재단 김정식 이사장으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 받았다. 김정식 이사장은 고려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에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좁아진 심장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바 있으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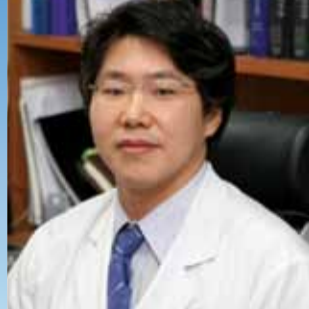
술을 집도했던 임도선 교수를 통해 기부의사를 밝혔다. 기부금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협심증 연구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며, 고려대의료원은 기부자 예우로서 임도선 교수가 앞으로 김정식 이사장의 주치의로 건강을 보살피도록 했다. 김병철 총장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산 증인이자 이 분야에서 크나큰 업적을 남기신 김정식 이사장님께서 과학교대의 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사장님의 고귀한 뜻을 살려 의학연구를 위해 귀중하게 사용하겠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11년도 전기 신임 교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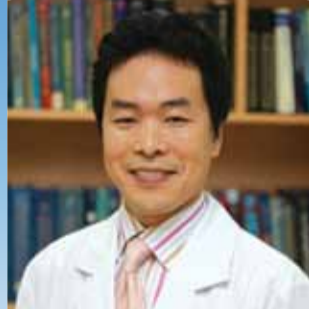
국제적인 경제력 갖춘 의료진, 맹활약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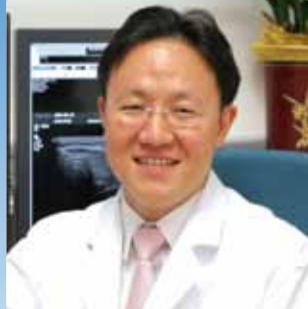
안과 유정권(부교수)
진료과목 - 녹내장, 백내장
진료일: 오전_수금, 오후_월화
외래 920-5520



정형외과 정웅교(부교수)
진료분야 - 어깨, 팔꿈치, 스포츠의학
진료일 월_오전, 금_오후
외래 920-6853



핵의학과 천기정(부교수)
진료분야 - 종양핵의학, 방사성핵종치료
진료일 - 월_오후
외래 920-5540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조교수)
진료분야 - 감상선암, 부갑상선질환, 로봇감상선수술
진료일 - 화금_오전, 목_오후
외래 920-6670



순환기내과 안철민(조교수)
진료분야 - 협심증, 고혈당, 심혈관 중재시술
진료일 - 화금_오전, 목_오후
외래 920-6855

흥터작고 회복 빠른 갑상선암 로봇수술로 세계 선도하는 차세대 명의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

[이부서이사람]

독창적인 로봇 갑상선 수술법,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 받아

2008년 7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최첨단 로봇으로 갑상선암 수술 집도하며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받았던 차세대 명의, 고려대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 김 교수는 지금까지 로봇으로만 갑상선암 환자 100명 이상을 수술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쿠싱증후군,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등 각종 기능성 부신종양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로봇수술로만 10명 이상의 환자를 완치시키는 등 이 분야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그의 독창적인 로봇 갑상선 수술법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갑상선암의 내노라하는 권위자들이 모두 참석한 국제학회에서 임상성과를 발표해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학회에서 그의 수술법을 접한 이태리의 한 의료진은 자국 최초의 로봇 갑상선 수술 집도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그의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의 의료진들이 직접 안암병원을 찾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국가대표 의료가 65건 중 갑상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단독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공중받고 있다.

탁월한 연구역량과 활발한 학회활동으로 의학발전 선도사 자처

김훈엽 교수는 임상 뿐만아니라 연구역량면에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여성암 발생률 1위 갑상선암 환자의 약 87%에 해당할 정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 그 중 1cm 이하의 암인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해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등 최근 3년간 수십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를 자랑한다. 김 교수는 이와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 및 학술 간사, 수련위원회 위원, 대한외과학회 부총무를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The Asia and Oceania Thyroid Association, 대한갑상선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갑상선암 완전정복 앞장

김훈엽 교수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근 성공한 진행성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 갑상선 전 절제술 및 경부 광철술,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 부신 절제술 등 고난이도의 로봇 내분비 수술을 지속적으로 집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수술 기법 및 성적을 계속 국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갑상선암 유전자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임상적인 지표를 연관시켜 임상적 악성도가 다른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유전자 발현 양상 비교 분석 등의 일련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 연구 결과 찾아진 특정 유전자들을 조합해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의 임상적 악성도 예측과 치료 및 예후 판정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칩(DNA chip) 개발에 대한 장기 포부도 내놓았다.



외래 | 유방센터 920-6670

유방내분비 외과 김훈엽 교수

친절칼럼-따스한 봄맞이 하기

[친절리더칼럼]



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들였다(?). 종종 밖에 놀러 나갔다 들어오면 서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 얼핏 들으면 진짜 엄마 맞아?

라고 하겠지만 이유인즉슨, “엄마, 어떤 할아버지(할머니)가 아유, 고 녀석 인사 자-알 한다면서 웃으며 돈 주셨어요.”라며 천 원짜리 지폐를 내보이곤 했다.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지 않기에 그런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정말 주고 싶어서 주신다며 이유도 다양하

다. 이렇게 주어야 당신들 마음이 좋다며 주신다. 사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라고 가르쳐 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부터 먼저 다가가는 것을 잘 못 하고 있던 터라 아이들에게 좀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친절이나 배려는 다른 사람이 하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하기는 싫은 것이고 웬지 하면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무의식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친절리더 4기를 맡게 되면서 이것저것 정말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친절, 서비스, 배려를 외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

기게 된 것이다. 친절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서점을 가고 중앙도서관도 갔다.(친절관련 책자들이 의대도서관에는 많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 결과가 마치 부메랑의 법칙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듯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낀다. 기분이 좋다...

지금 나는 따스한 봄을 '친절'과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글 | 친절리더 73병동 김미숙 수간호사

디너(with friends)

[문화의 향기]



결혼에 관한 불편한 진실

작가 도널드 마글리즈(Donald Margulies)에게 2000년 풀리처 상을 안긴 작품

공연명 : 연극<디너> 원제: Dinner With Friends
공연기간 : 2011년 3월 4일(금)-4월 3일(일)
공연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3관
공연시간 : 화-금 8시 / 토 3시, 7시 / 일 3시 / 월 쉽
티켓가격 : 일반(대학생포함) 30,000원
관람등급 : 15세 이상
러닝타임 : 1시간 50분
작가 : 도널드 마글리즈 Donald Margulies
연출 : 이성열
출연 : 이석준, 우현주, 정수영, 정승길
공연문의 : 02-3443-2327

게이브와 카렌, 탐과 베스는 결혼 12년차 부부이며 오랜 친구들이다. 서로의 결혼 생활 내내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늙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던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탐과 베스의 결혼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게 되면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개인의 열정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가?” “함께한 12년이란 세월은 정녕 의미가 없는 것인가?” “우리의 결혼생활은 과연 믿음처럼 괜찮은 건가?” 친구들의 이혼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생활을 반추하던 또 하나의 커플(게이브와 카렌)의 이런 질문들 속에 시간은 12년 전, 그들이 아직 젊고, 아름답고, 사랑에 정열적으로 빠져 있던 시절로 돌아간다. 과거 속의 시간이 상상하게 빛날수록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의 유한함에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현재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미래에도 진실일 수 있을까?

글 | 원내기자 조규은(종합건강검진센터)

실명위기, 녹내장을 잡아라

[의학정보]

유병률 40세 이상 인구의 약 3.5%, 초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

국내 실명 인구가 70만명이나 된다. 그런데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녹내장(38%)으로 분석되고 있다. 뒤를 이어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이 꼽히고 있다.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시야 이상이 나타나는 녹내장은 심해지면 시력이 상실되기도 한다. 녹내장의 발생 기전은 안압상승이나 시신경 혈류 장애. 녹내장은 가족력, 눈 외상의 기왕력, 고도 근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당뇨병 등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녹내장에 대해 안과 유정권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국내에서도 실명 인구 70만명 가운데 38%가 녹내장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고 그 결과로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높은 안압(눈의 압력)과 시신경 혈류의 이상 등이 주요 발병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정상안압녹내장' 이 전체 녹내장 환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녹내장학회가 2007년 말부터 4개월간 충남 금산군 남일면에서 40세 이상 주민 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남일 연구') 녹내장의 국내 유병률은 3.5%이고 이 중 77%가 정상안압녹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이거나 위험인자가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안과 검진 받아야...

녹내장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고령(40세 이상), 인종적 특성, 가족력, 고도 근시, 눈의 외상,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등의 전신질환, 편두통 등이 발병 위험인자들이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 갑작스런 안압 상승으로 인해 구역질, 구토, 두통, 안통,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녹내장은 만성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중심시력보다 주변시력을 담당하는 시신경이 먼저 손상되기 때문에 병의 초기/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말기에는 터널 속에서 밖을 보듯 주변시야가 좁아져 중심부만 보이게 되는데, 환자가 이런 정도의 시야 손상을 느낄 정도면 이미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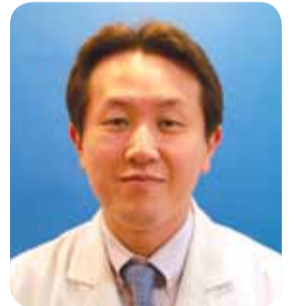
녹내장 치료는 진행되고 있는 시신경 손상을 중단시키거나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해도 눈의 기능을 질병 발생 전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 치료 방법에는 약물, 레이저 및 수

술 등이 있다. 약물 치료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술에 앞서 선택한다. 약물치료를 부작용이 있거나, 약물만으로 안압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없는 경우엔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했다고 녹내장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 후에도 안압 재상승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녹내장 예방 생활수칙으로는 금연, 카페인 음료 절제, 물구나무서기와 같이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피하기,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복압을 증가시키는 자세 피하기, 어두운 곳에서 TV/책/컴퓨터 오랫동안 보지 않기, 한번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기, 벡타이 느슨하게 매기, 유산소 운동하기 등이 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정권 교수는 "녹내장은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이거나, 젊은 층이라도 녹내장 발병 위험인자(가족력, 고도근시, 눈의 외상 과거력,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편두통)가 있으면 눈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며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서 나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고려대 안암병원 안과, 유정권 교수
외래 920-5520



주부들이여, 우울증을 벗어던져라

[별다른클리닉]

'주부우울증클리닉' 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검사로 주부우울증 탈출~



주부들 가운데 주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우울증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잠을 못 잘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자신이 우울증인 줄 알지 못한 채 오래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우울증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이화영 교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흥미가 감소된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병원을 선택 방문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강조한다.

주부우울증이란?

우울증은 슬프거나, 울적한 느낌이 기분상의 문제를 넘어 신체와 생각의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끼쳐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증상으로 주부가 고통받을 때를 주부 우울증이라 한다. 주부 우울증은 크게 흥분을 잘 하고 예민해지는 우울증과 무기력해져서 늘어지는 우울증이 있다. 문제는 우울증이 만성화되고 반복해서 재발함으로써 집안 살림을 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잦은 충돌을 일으켜 가정 불화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자식들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식들이 독립하는 시기의 상실감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시기가 갱년기와 겹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검사로 우울증의 원인 파악

주부 우울증의 진단은 첫째, 정신과 의사와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울증의 증상과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후 내과적인 검사가 진행되는데, 일반혈액검사, 심전도,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등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상태를 감별할 수 있으며, 이후 종합 심리검사를 통해 본인의 인지기능, 성격과 정서상태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전문적인 치료로 주부우울증 굿 바이!

면담, 내과검사, 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우울증으로 진단될 경우 곧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치료가 중심이 되며, 정신치료, 집단인지치료, 정신치료극, 광선치료, 전기경련요법 등 각기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방법이 포함된다. 유전상담을 통해 우울증의 맞춤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다. 가벼운 우울증일 경우, 운동을 포함한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힘든 점을 누구에게든 툭 터놓고 얘기하며 환기하는 것도 좋은 치료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화영 교수는 "우울증은 평생 유병률이 15%, 여성에게서 25% 정도에 이르는데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며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환이다. 한국은 2005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질환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질환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 정신과 이화영 교수
외래 920-5505



